

2020년 11월 0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대선 후 정책 기대 유입으로 강세 지속

세금 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 가능성 약화에 배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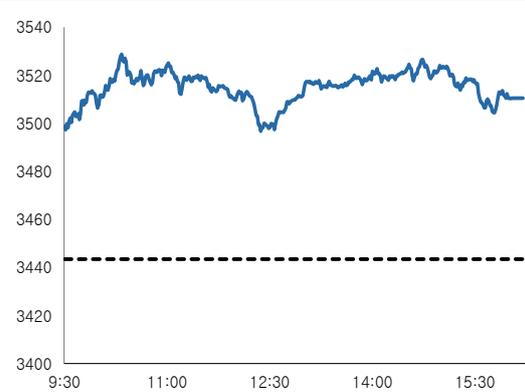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시장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주와 산업재가 전일과 달리 상승을 주도한 점이 특징. 더 나아가 친 환경 에너지 업종도 강세. 반면, 전일 급등을 보였던 제약, 헬스케어 등은 부진을 보이는 등 차별화는 지속.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코로나 재 확산을 우려 했으나, 최소한 현 자산 매입 속도 유지를 주장. 이런 가운데 장 마감 앞두고 일부 차익 매물 출회된 점도 특징(다우 +1.95%, 나스닥 +2.59%, S&P500 +1.95%, 러셀 2000 +2.78%)

미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세금 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 더불어 의회 권력이 나눠졌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영향. 더불어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되었으나, 일부 주 법원에서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하자 관련 우려가 완화된 점도 긍정적. 그런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 만명, 사망자도 전일 1,500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되고 있어 대선 이후 미국의 코로나 통제 위한 핀셋 봉쇄는 불가피 할 듯. 그렇지만 전국적인 봉쇄를 진행 중인 영국의 BOE 가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 했던 사례를 보듯이 미국의 경우도 경제 핀셋 봉쇄와 부양책을 동시에 집행 할 것이라는 기대도 상승폭 유지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코로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 경제 활동은 회복 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보다 크게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언급. 더불어 연준의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위기가 올 때 적절한 정책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는 등 지난 성명과 큰 변화는 없었음.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 해졌고 미래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 특히 최근 코로나 재 확산을 매우 우려하고 있어 자산 매입은 '최소한' 현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자산 매입 축소를 고려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다만,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지만 결정은 의회가 해야 한다며 재정정책 확대를 언급. 이를 감안 향후 관련 이슈에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413.79	+2.40	홍콩항셱	25,695.92	+3.25
KOSDAQ	844.80	+2.16	영국	5,906.18	+0.39
DOW	28,390.18	+1.95	독일	12,568.09	+1.98
NASDAQ	11,890.93	+2.59	프랑스	4,983.99	+1.24
S&P 500	3,510.45	+1.95	스페인	6,924.20	+2.10
상하이종합	3,320.13	+1.30	그리스	590.16	+0.33
일본	24,105.28	+1.73	이탈리아	19,731.38	+1.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산업재 강세

퀄컴(+12.75%)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도 시장 컨세서스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 했다. 특히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 요인이 아이폰 12 판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인했다는 발표로 애플(+3.55%)은 물론 스카이웍(+6.87%), 브로드컴(+4.45%), 퀴보(+9.68%) 등 애플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퀴보의 경우 양호한 실적 발표한 이후 목표주가 상향 조정 등이 이어지며 상승 폭이 컸다. 퍼스트솔라(+8.92%), 진코솔라(+28.44%) 등 태양광 업종은 바이든 승리가 확실시 되자 급등 했다. 넥스트라 에너지(+1.95%)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다.

JP모건(+4.09%) 등 금융주와 캐터필라(+2.35%) 등 기계업종, GM(+5.39%), 포드(+4.58%) 등 자동차업종, 델타항공(+5.09%), 부킹닷컴(+3.21%) 등은 코로나 확산 불구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코로나 통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과 부양책 발표 기대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전일 급등했던 유나이티드헬스(-0.05%), 휴마나(-2.48%) 등 헬스케어 업종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바이오젠(-7.52%)은 알츠하이머 약물 관련 일부에서 임상 실패 후 재분석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을 들어 비정상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일라이일리(-2.07%)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다. 화이자(-1.52%), 브리스톨마이어스(-2.57%) 등도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5%	대형 가치주 ETF(IVE)	+1.46%
에너지섹터 ETF(OIH)	+1.26%	중형 가치주 ETF(IWS)	+2.12%
소매업체 ETF(XRT)	+3.13%	소형 가치주 ETF(IWN)	+3.17%
금융섹터 ETF(XLF)	+2.44%	대형 성장주 ETF(VUG)	+2.29%
기술섹터 ETF(XLK)	+3.11%	중형 성장주 ETF(IWP)	+2.2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3%	소형 성장주 ETF(IWO)	+2.81%
인터넷업체 ETF(FDN)	+3.09%	배당주 ETF(DVY)	+2.29%
리츠업체 ETF(XLRE)	+0.3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90%
주택건설업체 ETF(XHB)	+1.4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2%
바이오섹터 ETF(IBB)	-0.05%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20%	하이일드 ETF(JNK)	+0.41%
곡물 ETF(DBA)	+0.89%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3.97%	Long/short ETF(BTAL)	-2.6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3.36	-0.04%	+3.21%	-5.94%
소재	426.44	+4.05%	+7.29%	+2.75%
산업재	686.25	+2.28%	+6.96%	+1.01%
경기소비재	1,262.05	+2.02%	+4.45%	+1.66%
필수소비재	665.98	+0.79%	+3.67%	-0.73%
헬스케어	1,280.07	+0.18%	+8.01%	+2.22%
금융	417.44	+2.46%	+5.68%	-0.33%
IT	2,131.38	+3.12%	+6.71%	+2.37%
커뮤니케이션	211.67	+1.77%	+6.63%	+7.42%
유틸리티	326.52	+0.94%	+2.06%	+1.19%
부동산	221.67	+0.31%	+4.05%	-3.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별 차별화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2.37% MSCI 신흥 지수 ETF 는 1.7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2.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되자 외국인의 대규모 현,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급등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압박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지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된 대선 불복에도 불구하고 설령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기간이 정해진 불안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주 법원에서 트럼프 측의 소송을 잇달아 기각해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오늘 미 증시에서도 영향을 줬으며 특히 적극적인 부양책에 기대 금융과 산업재가 상승을 주도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영국의 BOE 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한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 해졌고, 향후 흐름도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함을 언급했으나, 자산 매입 규모는 '최소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고 매입 규모 축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 확산 관련 발언을 지속했고,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 확대를 요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일부 매물 출회로 보합 출발이 예상되며 이후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 개선 속도 둔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75.8 만건)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상(74.5 만건)을 상회한 75.1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79.1 만건에서 78.7 천 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청구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0 월 미국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의 11 만 8,804 건 보다 감소한 8 만 666 건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10 건 이상의 해고자 수를 종합하기 때문에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 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가 확산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OPEC+ 국가들의 감산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 기대 심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주식시장 급등에 따른 달러 수요 감소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대 강세를 보였고, 브라질 헤알화, 멕시코 페소화 등은 달러 대비 1~2%나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전일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미 대선 불확실성과 관련 일부 주 법원에서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 관련 우려가 완화된 점, 주가지수가 급등 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주장해 상승을 제한 했다. 전반적으로 국채금리는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금은 달러화 약세 및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3% 가까이 급등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 폭은 제한 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8.79	-0.92	+7.24	Dollar Index	92.589	-0.88	-1.45
브렌트유	40.93	-0.73	+6.98	EUR/USD	1.1827	+0.86	+1.31
금	1,946.80	+2.67	+4.22	USD/JPY	103.54	-0.94	-1.02
은	25.191	+5.43	+7.84	GBP/USD	1.3140	+1.17	+1.62
알루미늄	1,897.50	-0.58	+5.24	USD/CHF	0.9048	-0.78	-1.14
전기동	6,852.50	+0.22	+1.83	AUD/USD	0.7281	+1.38	+3.59
아연	2,615.50	+0.85	+3.32	USD/CAD	1.3049	-0.66	-2.07
옥수수	409.25	+0.99	+2.70	USD/BRL	5.5397	-2.22	-3.66
밀	609.25	+0.54	+0.91	USD/CNH	6.6077	-0.24	-1.51
대두	1,103.75	+1.61	+5.07	USD/KRW	1128.20	-0.84	-0.28
커피	108.45	+2.65	+1.17	USD/KRW NDF1M	1122.75	-0.54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65	+0.17	-5.84	스페인	0.089	-0.10	-4.20
한국	1.525	-4.00	+0.50	포르투갈	0.073	+1.00	-2.80
일본	0.022	-1.60	-1.00	그리스	0.826	-2.50	-11.20
독일	-0.637	+0.10	-0.10	이탈리아	0.666	-2.00	-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